

2011년도 중국농업연수기



문 종 선 이사
전남 장성 서삼

우리협회 2011년도 중국농업연수단 23명은 8월 27일(토) 12:30(한국시간) 인천공항을 출발 흑룡강성 하얼빈공항에 13:30(현지시간) 도착하여 흑룡강성유기수도협회 홍상표 회장과 우리 조선족 신문인 흑룡강신문사의 장혜준 부사장 등의 영접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우리의 연수 목적지인 가목사시로 버스를 이용 6시간 정도 달려 21:00시경 가목사시 숙소로 도착, 현지 조선족 동포들의 영접과 환영만찬을 마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28일 아침 일찍 숙소에서 다음 일정인 나북현으로 출발하여 아침식사는 학강시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해결하고, 나북현에 11:00시경 도착하였다. 나북현 민족종교국장 홍순복 및 나북현 간부직원들의 안내로 동명조선족향을 방문하여 동명조선족향의 현황을 허동범 향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벼 재배 현장을 답사하였다. 조선족 거주 가구수 1,000여호, 7개촌에 인구 3,560여명, 주요 작물은 벼로 재배면적은 2,600ha이며, 행정구역은 흑룡강성 학강시 나북현 동명조선족향이다. 금년도에는 적당한 강우량과 일조량 등 좋은 기후 덕분에 예년에 없던 대풍작이라고 한다.

친환경재배 면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반적 관행 벼 재배이며, 전체 논에 피가 무척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현상은 일반재배에 있어 제초제를 살포하여 말끔하게 제초작업을 하지만 이곳은 제초제의 성능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제초제 살포 후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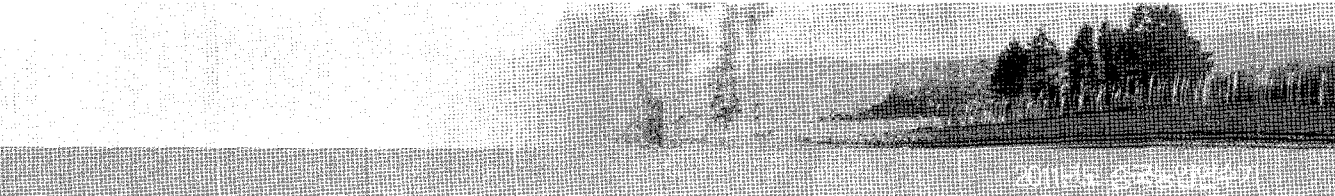
관리를 잘못하였던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후기 물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일찍 물 빼기를 해서 논을 말리고 있는냐고 물으니 벼 도복 때문이란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벼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북현에서 1박을 하고 라북현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밀산시로 29일 아침에 출발하였다. 약 9시간 정도를 버스로 이동하여 저녁 8시경 밀산시에 도착하였다. 밀산시 민족종교국장 채명균의 안내로 밀산시 호텔에 여장을 풀고 밀산시장이 참석한 환영만찬장에서 만찬행사를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하였다.

만찬장에는 시장을 대신 맹고군 부시장과 채명균 국장, 박만길 부국장, 김장호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2박3일 밀산 일정 내내 맹고군 부시장과 채명균 국장 등의 안내로 밀산시의 전 일정을 마쳤다.

지금 중국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마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밀산시 해방촌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 마을이란다. 현장을 가보니 마을이 아주 잘 정비·정돈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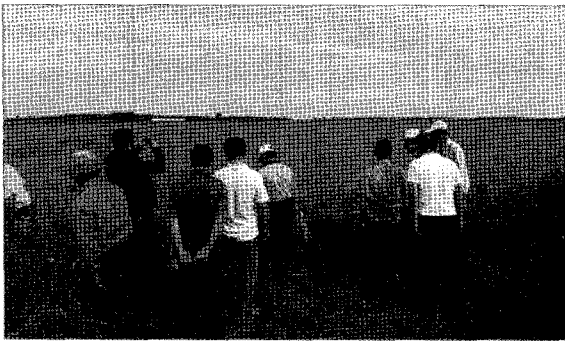
밀산시에서 가장 큰 농장인 조선족 김장호씨가 경영하는 농장을 시찰하였다. 이 농장의 규모는 300ha(약 90만평), 종업원 수 20명, 연간 순수소득 2억여원(한화) 정도라고 한다. 작황은 대풍작이었다.



이 농장의 경우 우리나라 동부한농에서 직접 농약 등을 수입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여느 지역처럼 피가 많았다. 이를 볼 때 제초제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위에 기술한 것은 여러 연수지역 중에서 조선족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제가 보고 느낀 점과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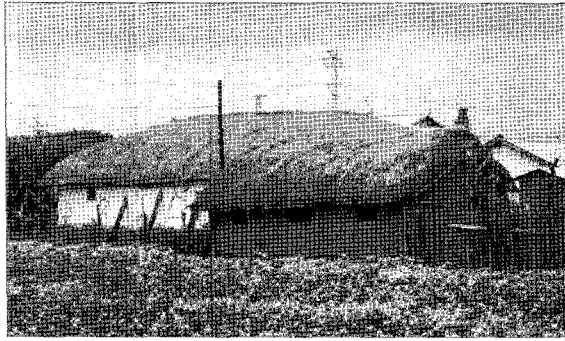
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위주로 만 하였으며,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실제 현지의 농민과의 대화나 좌담회를 통해 동포들의 농업기술수준과 농업? 농촌의 실상 등을 파악했어야 하나, 바쁜 일정 등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다보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실상 파악 등이 미흡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㉞



▲ 라북현 동명조선족향 벼 재배단지



▲ 라북현 동명조선족향 옥수수 재배단지



▲ 회평조선족향 한옥



▲ 신승촌



▲ 한흥동 서일 장군 유적지



▲ 옥수수 재배단지